

## 추모 발원문

세연을 다하신 고 방우영 회장님의 소중한 삶을 함께 기리어 추모하니, 지혜로운 인연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지이다.

언론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발자취는 현재를 열어주는 바탕이 되어, 사회와 국민의 유익함에 다다르고, 일평생 혁신경영의 공덕은 손손대대로 성취를 이룰지이다.

신문의 역할과 기자의 사명을 올곧게 하고자 성심을 다하고, 그 길을 넓혀 나가겠다는 단단한 심성과 지대한 원력은 선명한 자취로 남아, 추모하는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자리할 지이다.

고인의 크신 광명으로 후대는 공명정대와 봉사의 정신으로 일상을 행하여, 국민을 공경하여 인정받고 모든 일이 화평하고 순창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상서로운 광명이 항상 함께 하여지이다.

이제 인연 맺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덕행을 마음에 두었으니, 이승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원하는 곳에서 편안케 누리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